



박소현의 섹.시.토크

J는 남편과 무늬만 부부인 채로 3년을 살았다. 각방을 쓰고 집안에서 마주쳐도 기본적인 이야기 외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이혼을 하는 대신 J는 최소한의 머느리 도리와 아내 도리만 하기로, 남편은 최소한의 사위 도리와 남편 도리만 하며 그냥 살기로 합의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 부부 사이가 그런 건 아니었다. 신혼 초에는 잉꼬부부도 유명했기 때문이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생때때 업소를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런 소동이 극대화되었던 것이 딱 3년 전이다. J가 남편에 대한 모든 기대와 미련을 접은 지 3년이 지난 셈이다. 작년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곳저곳 놀러다니기 바빴던 남편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들어서부터다.

슬쩍 보기에 남편은 다소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다. 아무래도 경기불황에 여기저기서 불고 있는 감원바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여전히 제 버릇 누구 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일찍 들어와 아이와 놀아주는 선행을 베풀어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의 일이다. 남편이 아무런 작은 방에서 뭘 가지고 나올 것이 있어 J는 잠깐 방으로 들어갔다. 욕실에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이 웃을 갈아입고 있었다. 그것도 속옷을, 잠자리를 안 한지도 삼 년이 넘는 사이인 J는 남편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이 좀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다.

을 또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의 벗은 몸을 짧게나마 목격한 J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남편의 그쪽이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나 면도를 맡겨주게 했는지 목예전에 보았던 포르노 비디오의 남자 주인공 하반신 같기도 했다.

물론 사이즈 면에서는 현격히 차이가 났지만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남편에게 일말의 미련이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고 싶지만 그 호기심마저도 미련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의외로 빨리 밝혀졌다. 공금증을 참지 못한 J가 그날 밤, 남편에게 질문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긴 왜 밀었어?” 평소엔 단 한마디도 안 하던 J의 입에서 질문이란 게 나오자 남편은 순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더 이상 바람 안 피겠다는 의지야. 쪽 팔려서 여자랑 못 자니까.”

이트로 포르노 모델 활동이라든 하는 건지, 아니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거기를 면도 하는 일은 거의 없을 듯하다. 그럼 대체 밀까? 혹시 성병 같은 것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밀게 된 것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러다 J는 이렇게 속앓이를 했다. ‘그 사람이 어디를 밀든 내가 무슨 상관일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도 남편에게 일말의 미련이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주장하고 싶지만 그 호기심마저도 미련처럼 느껴졌다. 진실은 의외로 빨리 밝혀졌다. 공금증을 참지 못한 J가 그날 밤, 남편에게 질문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거긴 왜 밀었어?” 평소엔 단 한마디도 안 하던 J의 입에서 질문이란 게 나오자 남편은 순간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내 평정을 되찾고 말했다. “더 이상 바람 안 피겠다는 의지야. 쪽 팔려서 여자랑 못 자니까.”

“그건 나도 모르지. 꽤 걸릴 걸.” “자랄 때마다 수시로 밀어주면 되겠네.” 그렇게 말하며 J는 안방으로 들어왔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를 부부가 사적으로 나눈 대화치고는 3년 만에 가장 긴 대화였다. <연애 칼럼니스트>

“더 이상 바람 안 피겠다는 의지야. 쪽 팔려서라도 여자랑 못 자니까.”

너무 놀란 나머지 하마터면 “왜 면도했어?”하고 물어볼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관심을 보일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니고, 잠시나마 남편의 거기를 훑쳐봤다는 걸 듣기는 것도 싫었기 때문이다.

그날 하루 종일 J의 머릿속엔 ‘남편은 거기를 왜 밀었을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아라바

리빙 센스

화장 잘 받게 하는 마사지

▲입술 손가락으로 미간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지그시 눌러준 뒤 이마 부위를 눌러 긴장을 풀어준다.

▲미간에서부터 양쪽 눈 옆의 움푹 들어간 부분(태양혈)까지 천천히 마사지를 해준 뒤 태양혈을 지그시 눌러준다. 두통이 있을 때 지압해 주면 좋다.

▲코 옆선을 따라 부드럽게 눌러준 후 인중을 지그시 누른다. 콧대 부분을 양검지로 엄격히 느껴질 정도로 비벼주면 축농증과 비염에 효과가 있다.

▲귀를 잡고 가볍게 돌려주고 비벼준다.

▲손을 비벼서 열을 낸 다음 얼굴 전체를 가볍게 마사지를 해준다. 콘소리로 ‘아·에·이·오·우’를 말하면서 얼굴 근육을 풀어준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21일(음 10월 24일 乙丑)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rticle titled '문근영 선행에 '악플' 네티즌 비난 '빔발'' (Moon Geun-yeong's advance to 'Akp' netizens' blame 'beam-bal'). Includes a photo of Moon Geun-yeong and text discussing her actions and the resulting online backlash.

Go board game section titled '계89호 전국체전바둑대회 불만없는 절충' (Go board game section for the 89th National Sports Meeting). Includes a Go board diagram and text discussing the game and player strategi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English (Sorry I had to go so early), Japanese (道(みち)が滞(じゅうたい)してたんだもの), Chinese (你的笔是不是红的?), and Korean (中原逐鹿). Each column includes a question, answer, and explanation.